

##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 -

호테이 토시히로  
(布袋敏博, 와세다대학교)

### 1. 머리말

필자는 전에 어느 심포지움에서 「재일한국인 문학의 기원과 그 전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sup>1)</sup> 그것은 전전<sup>2)</sup>의 출발기부터 전후 초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었다.

재일 한국인 문학<sup>3)</sup>의 출발점을 어디로 볼 지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달라진다. 그 명확한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그 발표 때 필자는 일단 범위를 넓혀 보고 '재일 한국인 문학'이란 '일본에 건너 혹은 일본에서 태어나 그 후에도 일본에서 문학활동을 계속한 사람(그리고 일본에서 발표된 작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언어가 일본어든 한국어든 상관없음)이 쓴 문학'으로 규정하고 그 출발점을 1920년대 초부터 일본에서 활동을 시작한 정연규(鄭然圭)와 김희명(金熙明) 등을 효시로 보았다. 그리고 장혁주(張赫宙), 김사량(金史良)<sup>4)</sup> 등의 활약이 있던 후 현재 있는 '재일 한국인 문학'에 이어지는 움직임

---

1) 2000년 2월 21일, 고려학회 (하와이 호놀룰루 대학교)

2) 1945년 8월 15일의 패전 이전을 가리키는 호칭. 일본에서는 '전전' '전후'라는 표현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재일 한국인 문학에 대해서도 유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용어를 씀.

3) 본고에서는 고유명칭 이외는 '재일 한국인' 혹은 재일 '한국인 문학'으로 함.

4) 재일 한국인 문학을 말할 때 장혁주, 김사량 두 사람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전

임이 1940년을 전후하여 김달수(金達壽) 등에 의해 시작됐다고 보고 이어 전후 직후의 양상을 잡지에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러한 시점의 타당성 여하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일 한국인문학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연구 의견을 기다리고자 한다.

이번에 ‘해방직후의 재일 한국인 문인들의 활동’에 대하여 말하는 기회를 얻었으니 오늘은 그때의 발표를 좀더 부연하여 전후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재일 한국인 문학의 동향, 전개 양상에 관하여 간단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단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해방직후의 재일 한국인 문인들의 활동’이라는 제목에 대해서인데 실제로 ‘재일 한국인 문학’이라고 할 때 ‘해방직후’라는 파악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바 여기서는 시기를 좀더 넓혀 보고 일본의 패전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재일 한국인 문학 내지 재일 한국인 문학자들의 활동상황을 보고자 한 점이다. 양해해주기 바란다.

재일 한국인 문학 내지 재일 한국인 문학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서는 하야시 고지(林浩治)의 「전후 재일조선인 문학사」<sup>5)</sup>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또 사용언어도 일본어에 한정된 것이다. 기타 몇 편 있는 다른 사람의 논고도 같으며 당시의 잡지, 신문 등까지 포함해서 논한 글은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전후의 재일 한국인 문학은 아직 그 전체상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 이유로서는 자료부족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후의 장혁주는 이른바 재일 한국인 문학자들과 달리 독자적인 길을 걸어갔고 또 김사랑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제말기 중국으로 탈출했고 해방 후에는 이북 땅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재일 한국인 문학과는 역시 거리가 있었다. 다만 장혁주에 관해서는 전후 활동 중 특징적인 면도 있으니 마지막 장에서 그 부분만을 소개한다. 그리고 김사랑에 관해서는 필자가 자세히 검토한 바 있어 그것을 보기 바란다. 줄고, 「해방 후의 김사랑 각서」, 『靑丘學術論集』 제 19집,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1.11, 도쿄.

5) 하야시 고지, 「전후 재일조선인 문학사」, 『전후 비(非)일(日) 문학론』, pp.8~103, 신간사, 도쿄, 1997.

사실 전후의 초기 단계에서 50년대에 이르는 세기의 자료는 그 대부분이 보기 어려운 것이며 당시 어떤 잡지·신문들이 간행되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히 밝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한 점을 비추어 보아 본고에서는 우선 할 수 있는 한 구체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다행히 많은 재일 한국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80년대 이후 잡지 『민주조선(民主朝鮮)』을 비롯하여 중요한 자료들의 복각되어 있다.<sup>6)</sup> 그들의 선행작업에 의거하면서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단 부분적으로는 전제 「재일 한국인 문학의 기원과 그 전개」와 중복된 부분이 있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 2. 잡지를 중심으로 본 전후직후의 문예활동

-1945년~1950년-

조국의 해방을 맞아 일본에 잔류하게 된 재일 한국인들 중에서도 창작을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먼저 등사판으로 동인지 형태로 나왔는데 이진규(李珍珪), 허남기(許南麒) 등의 『인민문화(人民文化)』, 허종진(許宗軫)의 『고려문예(高麗文藝)』, 길원성(吉元成)의 『조국문학(祖國文學)』, 『조선(朝鮮)』, 김경식(金慶植), 강면성(姜冕星) 등의 『백민(白民)』, 재일본 조선인연맹(조련)(在日本朝鮮人聯盟(朝聯))의 『조선문화(朝鮮文化)』, 건청(建靑)의 『건국(建國)』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적인 수준이 낮은 데다가 아직 잡다한 사상, 의식 등이 불투명한 상태로 혼재하고 있는 상태’<sup>7)</sup>

6) 복각 『民主朝鮮』, 明石書店, 도쿄, 1993.

박경식 편,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戰後編>』, 전10권, 不二出版, 도쿄, 2000~2001.

또 같은 박경식 편으로 간행된 『朝鮮問題資料叢書』(三一書房)에는 전후자료로 『신조선』(제10권, 83년), 『民衆新聞』(보(補)권, 84년) 등이 수록되어 있다.

7) 서용철(徐龍哲), 「재일 조선인문학의 시동 - 김달수와 허남기를 중심으로」, 『민주조선 복각판』 해설 3, p. 49.

였다. 그리할 때 『해방신문(解放新聞)』, 『조선신보(朝鮮新報)』 등과 같은 민족신문이 발간되어 새 국면을 열게 된다.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해 그 당시의 신문·잡지 등의 발간, 그리고 주로 된 단체의 결성상황 등을 연대순으로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단체의 움직임		신문·잡지 등의 간행 상황	
1945. 9. 10	재일 조선인 연맹 중앙 위원회 결성	1945. 10. 10	『民衆新聞』 창간 (→『우리신문』 46.8.15) (→『해방신문』 46. 9. 1)
10. 15~16	재일 조선인 연맹(약칭 '조연') 중앙본부결성대회 개최 (위원장·尹權)		
11. 16	조선 건국 촉진 청년동맹(건청) 결성 (위원장·洪賢基)	11. 17	『고려문예(高麗文藝)』 창간
1946. 1. 20	신조선건설동맹(건동)결성 (위원장·朴烈)	1946. 3. 10	건청 『조선신문(朝鮮新聞)』 창간
		4. 1	『민주조선(民主朝鮮)』 창간 (~1950. 7)
		4. 5	『조연문화(朝連文化)』 창간
		8. 15	『우리신문』(『민중신문』 개재)발행
		8. 30	『신조선신문(新朝鮮新聞)』 창간
		9. 1	『해방신문』(『우리신문』개재) 발행 →10.10 개편 →50. 8. 2 제418호로 무기정간처 분 →52. 5. 20 복간 →57. 1.1 『조선민보(朝鮮民報)』 로 개재→ 61.1.1 『조선신보(朝 鮮新報)』 로 개재
9. 25	재일조선 거류민단 결정준비 위원회 개최	1946 ?	『자유조선(自由朝鮮)』 창간
10. 3	재일조선 거류민단 (민단) 결성	1947. 2. 1	『민단신문(民團新聞)』 창간
1947. 2. 20	재일조선문화단체 연합회 결성 (문단연: 조연, 민단의 공동조직)		
3.6~7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민청) 결성 (위원장·尹鳳求)	9. 1	민청중앙 『성우(星友)』 창간
		9. 5	『자유조선』 거의 일년만에 복간 (통권 제3호)
		10.	『조선문예(朝鮮文藝)』 일어판 창 간 (조선문예사)
1948. 1. 17	재일 조선문학회 결성 (재일조선문학 자회, 예술가동맹, 백민(白民)사, 신인 문학회 등의 합동조직)	1948. 8. 1	『우리문학』 창간(조선문, 재일본 조선문학회)

이처럼 잇따라 창간되어 신문지상에도 창작, 평론 등이 발표되었는데 『조선신보』 지상에서 일본어창작을 둘러싼 논쟁이 펼쳐진다. 조선문학일 수 없다는 어당(魚塘)과 일본어창작으로서의 조선문학의 가능성을 주장한 김달수간의 논쟁이 그것이다.<sup>9)</sup>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과거 일제 군제한테 짓밟혀 함정에 빠진 조선문학의 전통을 지켜 대중 문학 계몽운동과 연결시켜 조선민족문학의 재건에 노력하는 정통(正統)문학운동이며 또 하나는 일본어로 하는 창작이 가령 조선문학에 있어 기형적인 존재가 된다 해도 일본의 민주화촉진의 양 민족의 항구적인 행복을 위한 한·일 민족의 공통된 이념이다라는 전제 하에 일본문단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간접적으로 한국민주문학이 된다는 기형적인 과도기 문학운동이 그것이다.<sup>10)</sup>

그리고 후자의 문학운동의 일환으로 『민주조선』이 발간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에 의하여 문학잡지가 발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조선문예』(일본어문잡지)이며 『우리문학』(한글지)이다. 그리고 이 잡지들이 주로 재일조선인연맹(조선)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거류민단(민단) 계통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간된 것이 『자유조선』(일본어지)이다.

그런데 앞 서용철의 인용문에 나온 잡지들 중 몇 가지는 근년 복각된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볼 수 있다. 인용자의 말이 맞는지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 된 셈이며 그 작업은 앞으로의 과제 중의 하나이다.

상기 제 단체들의 움직임 중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47년 2월 20일에 결성

8) 이상은 박경식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主要年表 (1945. 8~1988)」 (같은 저자, 『解放後在日朝鮮人運動史』 卷末附錄(三一書房, 1989, 東京)), 박경식 편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戰後編>』 第8~10卷(不二出版, 2001, 東京), 『民主朝鮮』 復刻板, 사이트 「재일의 눈(在日の眼)」에서 작성한 것임. 이 사이트는 Mun Kunsu 씨의 인터넷 「[http:// www.bekkoame.or.jp/i/kunsu\\_mun/zzz/und1945a.htm](http://www.bekkoame.or.jp/i/kunsu_mun/zzz/und1945a.htm)」('1945' 부분은 바꾸면 됨)로 볼 수 있다.

9) 서용철, 「재일조선인문학의 시동」, p. 49.

10) 1948년간 『재일조선문화 연감(在日朝鮮文化年鑑)』, 앞의 논문, pp. 49~50에서 재인용.

된 ‘재일 조선문화 단체 연합회(약칭·문단연)’이다. 이것은 조연 측 문화인과 민단 측 문화인이 공동으로 문화활동을 하고자 결성된 것이며 그 의의는 오늘날 봐도 대단히 크다.

당시 조연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고 그 영향력도 컸는데 그 조연 삼전대회(三全大會)(1946. 10)에서 재일 한국인문화단체 연합에 관한 계획이 나와 거기에 민단 측 문화인들도 응한 것이었다.

그 결과 1947년 2월 20일 “김두용, 박흥규(朴興奎), 이상효(李相曉), 민정식(閔正植), 김병직(金秉稷) 등 35개 문화단체 대표 66명이 참여하여”<sup>11)</sup> 이 ‘문단연’이 조직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후에 시도된 최선(崔鮮)들에 의한 남북의 통일문화운동에 이어지는 그 선구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불행히도 이 움직임은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으나 오늘날도 여전히 재일한국인 사회에 시사한 점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이름이 나온 이들 신문·잡지는 『민주조선』이외에는 이제까지 거의 언급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이외에도 당시의 귀중한 신문·잡지들이 근년에 들어와서 많이 복각 간행되었으니 이하에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발행연대 순으로 개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sup>12)</sup>

#### (1) 『고려문예(高麗文藝)』

전후 발행된 잡지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문예지는 『고려문예』이다. 이것은 발행소 고려문예사, 편집 겸 발행인 허종진(許宗軫)이며 등사판 인쇄인 한글지이다. 1945년 11월 27일에 창간호가 간행되고 46년 1월 15일 발행인 제4호까지가 확인된다. 한 달 두 번 간행되었고 각 호의 발행 날짜는 다음과 같다.

11) 박경식, 앞의 글 『해방후 재일 조선인 운동사』, pp. 234~235.

12) 『조선문예』 창간호의 ‘편집후기’에는 “최근에는 문예잡지 『현해(玄海)』가 창간될 지경에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여기서 소개한 잡지 이외에도 많은 잡지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예지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 발행되었는지는 모른다.

제1호 : 1945년 11월 27일, 26p

제2호 : 1945년 12월 15일, 32p

제3호 : 1946년 1월 1일, 29p

제4호 : 1946년 1월 15일, 35p

그 이후는 확인 못했으나 제4호로 끝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창간호에는 백운(白雲) 작사, 진예훈(陳禮勳) 작곡의 「無窮花江山」이 실려 있고 또 역시 백운의 시 「東天의 曙光」, 이순신과 선조의 한시 등이 시릴 있다. 제2호에도 애국가와 박용철의 시 「떠나가는 배」, 백운의 시 「渾明의 사냥군들」, 이찬의 시 「白山嶺上俯瞰圖」 등이 실려 있다. 제3호, 제4호에도 백운의 시가 게재되어 있고 또 백철의 「風流人間의 文學」(상)(하)이 실려 있다.

이 잡지는 『문예』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문학작품보다 일반기사, 논설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두달도 못하는 단명한 잡지였으나 거의 최초의 문예 잡지로서 그 의의는 크다.

(2) 『조선시(朝鮮詩)』

다음에 확인되는 것은 『조선시』라는 잡지이다. 1946년 3월 1일 발행인 제2호(제1권 제2호)가 남아 있어 그것을 보면 월간인 것을 알 수 있으나 몇 호까지 나왔는지는 모른다. 발행소는 조국문학사 관동(關東)본사, 발행인 이화석(李和錫), 편집인 길원성(吉元成)이다. 역시 등사판 인쇄이며 표지를 포함해서 총50페이지의 한글지이다.

『조선시』라는 이름인 만큼 시 46편, 희곡 1편, 소설 1편, 수필 1편, 시, 영화 등에 관한 논설이 5편 등이 실려 있다. 수필은 그 후 제일 한국인 문학자로 활약하게 된 이은직이 「率直한 人間性」이라는 글을 쓰고 있다.

(3) 『조련문화(朝聯文化)』

조연의 기관지인 이 잡지는 재일본 조선인 연맹 중앙총본부 문화부 발행이며 역시 등사판 인쇄의 한국어지이다.

1946년 4월 5일에 창간되어 제2호(46년 10월 20일 발행)까지 확인된다. 편



집은 창간호는 이상효, 제2호는 조선인연맹중앙총본부 문화부로 되어있다.

창간호는 62페이지, 제2호는 111페이지의 당당한 것이며, 창간호에는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가 「朝鮮同胞에게」라는 글을 특별 기고한 것이 눈에 띈다. 문화부 기관지인 만큼 시, 예술론 등이 많이 실려 있고, 창간호에는 허남기(許南麒)의 시 「내피를」과 정백운(鄭白雲)의 시 「하늘」, 이은직의 예술론 「春香傳과 朝鮮人民精神」이 게재되어 있다. 또 권말에는 박아지 작사 김순남 곡인 「논민가」가 실려 있다.

제2호에는 역시 허남기의 시 「青春」, 이은직의 위글의 (하), 차영(車影)의 희곡 「땅파는 사람들」 등의 실려 있다.

#### (4) 『민주조선(民主朝鮮)』

『민주조선』(도중에서 한번 『문화조선(文化朝鮮)』으로 게재함)은 1946년 4월부터 1950년 7월까지 33호에 걸쳐 간행된 일본어 잡지이다. 『민주조선』은 재일 한국인에 의하여 일본의 패전 직후에 재빨리 그리고 4년이라는 기간에 간행됐다는 점에서 특필할 만한 일이며 문학뿐만 아니라 재일 한국인운동에 있어 이 『민주조선』이 이룬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래서 이 시기를 연구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문헌이지만 지금은 전 권 다 복각되어 있고 여기에 언급한 논고<sup>13)</sup>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루고자 한다.

『민주조선』이 실제 발간된 것은 해방 후 약 8개월 뒤의 일이지만 그 간행은 일제말기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처음에는 먼저 문예지를 발간하고 그 다음에 종합잡지를 간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sup>14)</sup> 이 계획은 실제로는 우선 『민주조선』이라는 종합지가 발간되며 문예지는 나중에 『조선문예』라는 잡지로 결

13)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고가 있다.

다카야나기 토시오(高柳俊男), 「『민주조선』에서 『새로운 조선』까지」, 계간 『삼천리』 48호, 1986.

고바야시 토모코(小林知子), 「GHQ에 의한 재일조선인간행잡지 검열」, 『재일조선인사연구』22호, 1992.

복각본 『민주조선』 해설, 1993.

14) 「편집후기」, 『민주조선』 창간호, 1946. 4.

실을 맺는다. 이것으로부터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민주조선』은 종합잡지인데도 문학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즉 문학에 관한 글이 전체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sup>15)</sup>이다. 집필자 중에는 약 55%를 차지한 재일조선인 중에 김달수, 허남기, 이은직 등과 같은 일부를 볼 수 있고 23% 정도를 차지한 본국의 조선인으로 김대준, 임화, 이태준 등을 비롯한 23명(내지 24명)에 이르는 문학자의 이름을 볼 수 있다. 그 대부분은 조선문학가동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함께 일본인이 많이 등장하는 것(약 21%)도 특징적인 일이다. 여기에 이 잡지의 기존적 생각의 일단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잡지의 중심인물이었던 김달수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잡지는 과연 조선인이 경영하고 조선인이 편집한 잡지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조선인만이 읽는, 조선인끼리의 잡지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중략-인용자] 조선인만이 읽는, 조선인끼리의 잡지라면 일본에 있어도 조선어활자를 주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무얼 좋아서 일본어로 발행할 건가. [중략]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이 잡지가 발행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과거에 조선 및 조선인에 대하여 그 인식을 잘못해 교육을 받은 일본인이 올바른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되찾는 것을 도와주며 양국의 다가올 장래의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데에 쓸모가 있고 싶기 때문이다. [중략] 그래서 이 잡지는 조선인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지성으로부터도 조선은 어떠한가 나아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말하는 것이다.<sup>16)</sup>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야 대단히 열린 태도라고도 불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전후 직후라는 그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전해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가진 『민주조선』에 실린 재일조선인의 작품은 소설 33편, 연재소설 3편, 시 17편, 연작시 2편, 희곡 3편에 이르고 있다.

15) 박종명(朴鍾鳴), 『『민주조선』 개관』, 복각 『민주조선』 해설1, pp.9~10.

16) 『편집실에서』, 『민주조선』 1-6, 1946. 12

(5) 『조선문예(朝鮮文藝)』

『조선문예』는 1947년 10월에 창간된 재일 조선인에 의한 일본어문의 문예지<sup>17)</sup>이다. 발행처는 조선문예사이다. 이 잡지가 몇 년까지 이어지며 몇 호까지 나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필자는 아직 다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필자가 볼 수 있던 5권, 즉 1947년 10월호(창간호), 1948년 2월호(제2권 제1호), 1948년 4월호(제2권 제2호), 1948년 7월호, 1948년 11월호에 한하여 보고자 한다.<sup>18)</sup> (각 목차는 부록을 보기 바람)

이 『조선문예』는 일본어로 된 것이지만 해방 후 재일 조선인들에 의해 간행된 최초의 문예지라는 점에 그 가장 큰 의미가 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박삼문(朴三文)이며 발행소는 조선문예사, 그 주소는 ‘東京都文京區大塚坂下町 57’ 임은 5권 다 같고 다만 인쇄인의 이름만이 1948년 7월호와 11월호에서는 ‘大寺一郎’에서 ‘關根竹四郎’로 바뀌고 있다(주소는 같음).

여기에 실린 작품들은 장편(연재)소설 2편, 단편소설 2편, 시 4편, 평론 7편, 수필 1편, 연구 1편이다. 그 이외에 일본인의 글도 5편이 있다.

창간호에 실린 이석주(李石柱)의 「조선민족문학의 전개」는 해방에서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간 시점에서 환희와 절망의 흥분상태에서 깨어 냉정한 눈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고 있다. 그리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서도 문학은 사상 가장 융성기에 있다고 하면서 본국의 조선문학가동맹 등의 움직임을 소개한 글이다.

17) 이 『조선문예』지에는 조선어판도 있었다고 한다. 일본어판 『조선문예』 1948년 2월호(제2권 제1호)의 목차에는 “조선어판 『조선문예』 2월 창간호 금월중순발매”라는 광고가 보이며 ‘편집후기’에는 “금월호부터 자매지로 ‘조선국문판·조선문예’를 간행함”으로 되어 있고, 또 4월호 목차에는 “조선어판 조선문예 3월호 발매중”이라는 광고와 함께 ‘편집후기’에 “조선어판 『조선문예』도 예정보다 너무 늦었지만 겨우 출간됐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면 조선어판 『조선문예』는 일본어판과 같이 조선문예사에서 1948년 3월호로 창간된 것일 것이다.

18) 1948년 2월호의 ‘편집후기’에는 “본지 11월호에 ‘문예시평’을 쓰신 송차영(宋車影)씨의” 운운으로 쓰고 있어 또 한 권이 간행됐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허남기의 소설 「신(新)광인일기」(1948. 2)는 노신이나 고평리의 작품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은 수법으로 당대 정치상황을 야유한 것이며 이은직의 「저미(低迷)」(1948. 7)와 「폭풍 전야(暴風の前夜)」(1948.11)는 둘 다 장편 『어느 교육자』의 일부이며 해방을 맞아 민족교육에 매진하는 젊은 교사의 모습을 그리면서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적이고 무기력한 분위기를 비판한 소설이다.

이러한 창작과 더불어 창간호에서는 이미 아오노 쓰에키치(青野季吉)가 「조선작가와 일본어의 문제」를 쓰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에 이어서 제2권 제2호(1948. 4. 1)에서는 “용어문제에 대하여”라는 특집을 편성했는데 주목할 만하다. 그 필자와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인 나는 왜 일본어로 쓰는 것일까	이은직
일본어를 의한 조선문학에 대하여	어당(魚塘)
일본어의 적극적 이용	도쿠나가 스나오(德永 直)
하나의 가능성	김달수

어당을 제외한 3명이 일본어로 쓰는 것의 효용을 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어당은 조선어없이 조선문학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것은 일찍이 『조선신보』 지상에서 일어난 일본어창작을 둘러싼 논쟁의 재현이며 이 문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잡지이외에 발행처인 조선문예사에서 발행된 책으로 김달수의 장편소설 『후예의 거리(後裔の街)』(1948. 3)와 『재일조선문화 연감 1948년판』, 『재일조선문화 연감 1949년판』(1949. 4) 등 3권은 간행된 사실이 다른 문헌으로부터 확인된다. 그리고 그 이외에 『재일조선작가 소설선집(在日朝鮮作家小說選集)』(『조선문예』 창간호의 p.13 및 48년 2월호의 p.33)이라는 광고도 있으나 간행되었는지는 미확인이다.

(6) 『자유조선(自由朝鮮)』(1946)

『자유조선』은 1946년에 창간되었는데 얼마 되지 못해 휴간되며 1947년 9월

에 제3호를 복간호로 내면서 재출발한<sup>19)</sup> 일본어 종합잡지이다. 이 잡지도 언체까지 계속 나왔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49년 12월까지의 확인할 수 있다. 이 잡지가 거류민단계인 것은 광고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이 잡지에도 몇 개 문학작품을 찾아낼 수 있다. 필자가 참조할 수 있던 호에서 그들을 뽑아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소설	처(妻) (3)~(4)	흑구(黑丘)	1947. 9~10
노래	아리랑 별곡 (アリラン替えうた)	이원주인(李園住人)	1948. 2
시	우리 청년이야 세워야 한다(われら青年が打建てん)		
		이경인(李耕人)	1948. 3~4
단가	어화(漁火)(7수)	홍전표(洪田杓)	1948. 5
소설	망향(望郷)(1)~(5)	성인규(成仁奎)	1949. 3.~12

이원주인의 노래 「아리랑 별곡」은 분단의 현실을 한탄한 것이며 이경인의 시는 약간 반공적인 냄새도 없지 않은 듯 싶은 것이다. 그리고 홍전표의 「어화」는 일본의 전통적 문예형식인 ‘단가(短歌)’ 형식으로 부른 노래가사이다. 마지막의 소설 「망향」은 재일한국인의 고향을 그리워 하는 심정을 나타낸 작품이다.

또 1947년 12월호 「재일 조선인단체의 일년간의 발자취」에는 당시 간행되어 있던 일간지, 주간지, 통신지, 잡지 등의 이름이 실리고 있다.<sup>20)</sup> 이들은 대부분 전후 잇따라 나타난 단명한 군소 정보신문·잡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는 『조선신보』, 『해방신문』, 『민주조선』 등도 포함되어 있어 시대를 엿보는데 어느 정도 유효할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간·격일신문 : 國際타임스(일문), 國際日日新聞(일문), 世紀新聞(일문), 朝鮮新聞(일문), 朝鮮新報(한글문)

19) 복간호의 「편집후기」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유조선은 발간되자 얼마안되 휴간상태로 돼 그로부터 벌써 일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자유조선』, 1947. 9

20) 정태운(鄭泰雲), 「재일한국인단체의 일년간의 발자취」, 『자유조선』, 1947년 12월호, p. 24.

주간신문 : 解放新聞(한글문), 自由新聞(일문), 國際經濟新聞(일문), 國際新報(일문), 民主新聞(일문), 文京新聞(일문), 自由社會新聞(일문), 東亞新報(일문)  
 통신지 : 朝鮮情報(일문), 韓米通信(일문), 朝鮮日報東京(일문), 東亞通信(일문)  
 잡지 : 朝鮮新民報, 自由朝鮮, 民生朝鮮, 民主朝鮮

(7) 『우리문학(우리 文學)』 (1948. 8. 1)

『우리문학』은 상기 세 가지 잡지와 달리 조선문의 문예지인 점이 가장 특징적인 일이다. 이것도 역시 몇 호까지 나왔는지 잘 모르며 필자가 볼 수 있었던 것도 창간호뿐이다. 그것을 보면 ‘편집인 어당, 발행인 이은직, 발행처 재일본 조선문학회(在日本朝鮮文學會)’로 되어 있고 그 주소는 ‘東京都中央區京橋2의 1’로 되어 있다.

창간호에는 재일본 조선문학회의 「규약」, 「강령」, 문학회 결성까지의 경과를 기한 「문학회일기」, 「회원명단」이 실려 있어 본지가 재일본 조선문학회의 기관지임을 알 수 있다. 창간호의 목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當面한 일	李殷直	1
發刊辭		2
文學의 大衆化問題	魚 塘	2
關西支部結成		3
새로운 愛情感에 關하여	李經國	4
文學會日記 [誌]		4
詩 그날	姜 舜	6
規約 在日本朝鮮文學會		8
綱領 在日本朝鮮文學會		9
會員名보		9
小說 술 먹는 畫家	金慶植	10
人物評 李殷直小論	許南기	11
도피		13
詩 風景畫 斷片	金珍珠	14
연재소설 "무거운 짐" 一제 일회一	김원곡	14
後記		16

이 문학회의 강령은 ‘일본제국주의 잔재의 소토’, ‘봉건주의 잔재의 청산’,

‘국수주의의 배격’, ‘민주주의민족문학의 건설’, ‘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와의 제휴’, ‘문학의 대중화’ 등 여섯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의 ‘문학의 대중화’ 이외는 조선문학가동맹의 다섯 개 기본강령과 똑같으며 조선문학가동맹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발간사」와 이은직의 「우리가 당면한 일」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길을 뚫고 나간다는 결의가 나타나 있고 어당의 「문학의 대중화문제」에서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회원명보에는 도쿄를 비롯하여 일본 각 지방의 회원 이름이 실려 있다. 그 분포는 도쿄 25명, 후쿠시마(福島) 1명, 사이타마(埼玉) 1명, 가나가와(神奈川) 5명, 기후(岐阜) 1명, 오오사카(大阪) 3명 등 총 96명이다. 그것을 분야별로 보면 소설부문 12명, 시부문 8명, 희곡부문 3명, 평론부문 9명, 고전부문 1명, 아동부문 1명, 외국문학부문 2명으로 되어 있다. 회원이름은 다음과 같다.

朴水郷, 全永春, 李珍珪, 金敬天, 姜秀子, 朴元俊, 金昌基, 林光撤, 千宗珪, 金孝植, 鄭泰裕, 李殷直, 姜○星, 金慶植, 鄭達鉉, 唐玟哲, 安涉, 李昌基, 殷武巖, 李興烈, 魚塘, 洪○基, 張○, 宗宇正, 高成浩, 李中春, 許南麒, 尹柴遠, 鄭白雲, 金元基, 金達壽, 張斗植, 都○烈, 李○義, 姜律, 朴明○

[○는 판독 불가능한 부분임]

그리고 제3면을 보면 관서지부도 결성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4·24 교육사건을 계기로 한 것도 알 수 있다.

#### (8) 『해방시 선집』 기타

이 시기에 간행물로서 잡지가 아니지만 하나 주목할만한 책이 나왔으니 소개할가 한다. 1946년 10월 25일에 발행된 『해방시 선집(解放詩選集)』이란 책인데 편자는 이진규(李珍珪)이며, 발행자는 재일본조선인연맹중앙총본부이다. 등사판 인쇄로 총 155쪽의 시선집이다.

재일한국인의 작품집이 아니라 그 당시 남조선에서 활약했던 시인들의 작

품을 모은 것이다. 당시 제일 한국인 문학자들의 문학경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서 흥미롭기도 하다. 수록된 시인과 작품은 18명, 30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林和	國軍行進曲	尹崑崗	우리의 노래
	獻詩		三千萬
	발자욱	安悅波	새날의 노래
金起林	파도소리헤치고	朴勝極	監房의記錄
權煥	그대	權五峻	통곡
	어서가거라	朴魯春	피시방을
	朴동무	金聖澤	五月祭
朴石丁	赤星	趙靈出	모든江물은 바다로 흐른다
	불가江	金大均	百姓과 博士
	歸鄉	金尙勳	「韓人」
李燦	아오리지나루		女子에게 주는 노래
朴世永	委員會에 가는 길	常民	建設
	순아		굳은 握手
朴芽枝	自然을 創造하는 사람	우정	어머니와 슬픈 歷史
	고향	編을 마치고	
	들으시나이까		

### 3. 6.25에서 민전의 해산까지-1950~1955년

『민주조선』지는 1950년 7월에 33호를 마지막호로 중단됐다. 이것을 분수령으로 하여 제일한국인문학도 다음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이 일어났으니 더욱이 그렇다. 그때부터 제일조선민주통일전선(민전)이 해산되고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결성된 1955년까지가 다음 한 시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1) 『麥』

이 잡지는 시인 허남기의 개인지이며 1951년 3월 26일에 등사판인쇄로 제 1호가 나왔으나 그 후는 안 나왔던 것 같다. 이 호에는 일본어로 된 장시 「노래와 전쟁의 시대다-1950년의 조선시의 보고-」 한편이 실려있다. 허남기는 1952년에 번역시 Anthology 『조선은 지금 전쟁 중이다.』(三一書房, 도쿄)를 간행하는데 이 장시는 그 책의 말미에 수록됐다.



## (2) 『조선평론』

『조선평론(朝鮮評論)』은 1951년 12월에 오오사카 조선인 문화협회(大阪朝鮮人文化協會)의 기관지로 창간된 잡지이며 1954년 8월 제 9호까지 간행했다. 『민주조선』의 후계지가 되리라는 포부를 가지고 출발한 이 잡지에는 『화산도』의 작가 김석범(金石範)이 제 1, 2 호를 편집하고 (제 3호부터는 김종명(金鍾鳴)), 또 창간호에는 「朴槌」이라는 필명으로 편 「1949년 무렵의 일지(日誌)에서」를 발표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sup>21)</sup> 그리고 시인 김시중(金時鐘), 허남기, 작가 이은직(李殷直) 등의 작품을 볼 수 있다. 모체인 오오사카 조선인 문화협회는 조련해산 후의 오오사카에 있는 문화단체의 통일기관으로 1951년 10월에 결성된 단체이며, “문예총(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총회)·문단련(재일조선인문화단체총연맹)과의 결탁이 본지의 편집, 성경을 전환시켰다”<sup>22)</sup>고 한다.

## (3) 『진달래』

『진달래(ジンダレ)』는 오오사카 조선시인집단(大阪朝鮮詩人集團)의 기관지로 1953년 2월 16일에 창간된 시 전문지. 다만 안남아있는 호가 많아 그 조사는 앞으로의 과제의 하나이다. 지금 확인된 호는 다음과 같다.

제 9호(1954. 10), 제 12호(1955. 7), 제 20호(1958. 10)

제 9호와 12호는 등사판이며 제 20호는 활자인쇄이다. 제 9호는 발행책임자 홍종근(洪宗根), 편집책임자 박실(朴實), 제 12호는 편집책임자가 정인(鄭仁), 발행책임자 박실이며 제 20호는 편집자 양석일(梁石日), 발행자 정인으로 되어 있다.

21) 필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것은 김석범 문학연구가인 一橋大學院生 송혜원씨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22) 宮本正明, 「朝鮮人刊行新聞・雜誌(2) 解題」, 『재일 조선인관계자료집성전후편 제 9권』, pp. 4-5.

작품들은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작품도 있다. 오늘날 재일한국인 시인으로 혹은 작가로 대표적인 존재인 김시중, 양석일 들도 그 문학적인 출발을 여기서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잡지이다.

#### 4.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연)결성이후

1955년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연)의 결성은 6.25이후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재일한국인문학자들의 실력이 늘어나며 그 방향도 다양성을 보여주기 시작한 반면에 조직과의 알력이 심해져 조직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1966년에 김학영(金鶴泳)이 「곱아진 입(凍える口)」으로 문예상을 수상한 무렵부터 재일한국인문학자들과 일본의 상업적 문학잡지과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사실 김학영은 그 전 세대 사람들과 달리 정치성보다 개인을 내세운 점에 특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재일한국인문학을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고 그 문제의 추구는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

이시기에 간행된 중요한 잡지를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1) 『鷄林』

- 第1号(1-1), 1958年 11月
- 第2号(2-1), 1951年 1月
- 第3号(2-2), 1959年 3月
- 第4号(2-3), 1959年 6月
- 第5号(2-4), 1959年 11月

이 잡지는 편집경 발행인이 장두식(張斗植), 발행소 계림사인 일본어잡지이다. 중심이 된 사람들은 『민주조선』 지를 낸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 일본에

는 약 60만명의 조선인들이 살고 있으며 일본인들과 함께 나날의 삶을 지내고 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상호이해'라는 하나의 다리를 걸고 싶다."(「창간의 말」에서)는 말에 이 잡지의 성격을 볼 수 있다.

박춘일(朴春日)이 「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을 연재한 것이 눈에 띄나 이것이 나중에 『근대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으로 결실된다. 그리고 역시 제 1호부터 「일본어로 쓰인 조선에 관한 문헌」이라는 조사가 시작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또 하나 재일조선인의 귀국운동에 관한 글이 실린 것도 주목해야 하는 점이라 하겠다.

### (2) 『문학예술』

이것은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중앙상임위원회(문예동)의 기관지이며 한글지이다. 제 3호가 1961년 5월에 간행되어 있다. 시인의 강순(姜舜), 작가의 김달수, 평론가인 윤학준(尹學準), 안우식(安宇植) 등의 이름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석범의 「화산도」가 제13호(1965. 5)부터 9회에 걸쳐 실린 것이 특기해야 하는 일이다. 후일에 일본어로 완성, 전 7권으로 간행될 거편(巨編)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조직을 나와 각각의 길을 걸어간다.

### (3) 『朝鮮文化』

第1号(1-1), 1962年 7月

第2号(1-2), 1962年 8月

第3号(1-3), 1962年 9月

第4号(1-4), 1962年10月

편집인 이은직(李殷直), 발행인 윤병옥(尹炳玉), 조선문화사발행인 일본어지. 「작가소개」로 한설야, 리기영, 리복명 등을 안우식이 소개하고 있고 『문학

신문』 『조선문학』 등의 기사를 번역,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朝陽』

第1号(1-1), 1963年 1月

第2号(1-2), 1963年 3月

리얼리즘연구회 「朝陽」 편집부 발행, 정귀문(鄭歸文)대표로 되어 있는 재일 한국인 동인지. 일본어잡지이며 일본사람들의 글도 실려있다. 박춘일이 「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에 이어 「전후 일본문학에 있어서의 조선상」을 연재하고 또 시모다 마사쓰구(霜多正次)의 「학생시절의 김사량」(제2호), 오오무라 마사오(大村益夫)의 「나와 조선」(같은 호) 등의 글이 눈에 띄고 정귀문이 장편 「민족의 노래」를 제2호부터 연재한다. 이 작품도 나중에 단행본으로 간행됐다.

### 5. 전후의 장혁주

재일한국인문학을 말할 때 꼭 거론되는 것이 김사량과 장혁주일 것이다. 그런데 김사량은 해방이 되자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 이후 이북에서 활동하고 장혁주는 일본에 남으면서도 다른 작가들과 달리 거의 일본인 작가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는 이른바 전후 재일한국인문학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그러한 장혁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 그것을 보면서 전후의 장혁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자 한다.

장혁주는 일본의 패전이후 좌우 양진영과 아무 관계를 맺지 않고 집필활동을 시작했다. 「민족」(『창건(創建)』 46. 4-6, 3회로 중단)이란 작품에서 일제말기의 자신의 친일행위를 변명한 후 이어 장혁주는 상당히 활발하게 작가활동을 계속했으나 그 작품에서는 재일한국인 내지 한국인이라는 특칭보다는 일

본의 통속작가의 한 사람이라는 색채가 짙은 것이다. 이미 일본사회가 한국인으로서의 장혁주에게 기대하는 점이 없어졌던 것이다.

다만 1952년 5월 출간된 『아! 조선(嗚呼朝鮮)』은 좀 다르다. 「고국의 비극에 통곡할 수 밖에 없는」<sup>23)</sup> 심정으로 쓴 이 작품은 일본사회에서 큰 화제가 된 작품이다.

이하에 전후에 출간된 작품을 보여주면 다음과 같다.

- 1946. 12 『고아들(孤兒たち)』
- 47. 12 『인품의 좋은 정도와 나쁜 정도 (ひとの善さと悪さと)』
- 48. 12 『우열한(愚劣漢)』
- 48 『젊은 여자(若い女)』 (未見)
- 49. 3 『은혜를 갚은 제비(恩を返したツバメ)』
- 50. 3 『비원의 꽃(秘苑の花)』
- 52. 5 『아! 조선(嗚呼朝鮮)』
- 54. 6 『무궁화(無窮花)』
- 54. 11 『편력의 조서(遍歷の調書)』
- 58 『검은 지대(黒い地帯)』 (以下未見)
- 59 『암병동(ガン病棟)』
- 59 『검은 한낮(黒い眞晝)』
- 75 『폭풍의 노래(嵐の詩)』

지금까지 여러 논자들은 54년 11월에 간행된 자서전적인 장편 『편력의 조서』로 “전후 장혁주 문학은 끝났다”<sup>24)</sup>거나 “이 이후 장(노구치)혁주와 그 문학의 영향력이 부활하지는 않았다”<sup>25)</sup>거나 하다. 이러한 견해는 대상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흥미로운 책이 있다.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 제 43권 동양편 5』(東京創元社, 1956, 7, 5)가 그것이다. 간행순서로서는 『편력의 조서』

23) 白川 豊 「전후의 장(노구치) 혁주」, 『植民地期朝鮮の作家と日本』, 大學教育出版, 岡山, 1995, p. 224.

24) 하야시 고지, 앞의 책, p. 45.

25) 시라카와 유타카, 앞의 책, p. 225.

에 이는 것이다.

이 책에는 「현대중국동화집」과 같이 「조선동화집」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번역을 野口(張)赫宙(노구치(장)혁주)가 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가 흥미롭다고 하는 것은 그 선택된 작가·작품들이다. 다음과 같다.

김남천 : 밝은 아침(明かるい朝)

안희남 : 환상의 어머니(まぼろしの母)

이태준 : 성북통신(城北だより)

一. 노란 손수건(その一、黄いろい手ぬぐい)

二. 큰 표찰(その二、大きな表札)

위 일어로 번역된 제목만 보면 원작이 뭔지 모를 것이나 이들은 김남천의 「무자리」(38. 9, 『조광』), 안희남의 「검허」(39. 10, 『문장』), 이태준의 「손거부」(35. 11, 『신동아』)와 「달밤」(33. 11, 『중앙』)을 각각 아동용으로 어레인 지한 것이다. 장혁주는 해설에서 「밝은 아침」은 「소년향을 개제한 것」<sup>26)</sup> 이라고 썼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이 원작인 「무자리」가 조선문고판·김남천 단편집 『少年行』에 수록되어 있으니 장이 착각한 것 같다.

앞에서 흥미롭다고 말한 것은 이 작품선택 때문이다. 왜 그러냐하면 김남천, 안희남, 이태준, 세 씨 다 월북작가인 것이다.

장은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조선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북에 조선인민공화국 [원문] . 남에 대한민국이란 두 나라가 성립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인민들의 마음이나 소원이 아니라 밖에서 오는 여러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중략-인용자] 앞으로는 반드시 남북이 하나가 되고 하나의 나라로 될 것으로 생각 되니 그러한 의미로서도 조선의 문학을 하나의 것으로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문학은 대강 식민지 시대, 해방후, 동란이후로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략] 동란 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 조선동란을 가리킵니다.

[중략] 문학으로서는 식민지시대의 작품이 한층 수준이 높은 것 같으니 여기서는 그 시대의 작품 중에서 아동문학에도 통하는 것을 골랐습니다.<sup>27)</sup>

26) 『세계 소년 소녀 문학 전집 제 43권』, 東京創元社, 1956, p. 317.

위 글에서는 6.25가 장혁주에게 준 충격의 정도를 엿볼 수 있는 것 같고 또 나라사 남북에 갈라지고 있는 현실을 장혁주가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장혁주는 1939년에 들어와서 소설 「加藤清正」(1월, 『文藝』 7-1)를 발표하고 이어서 다음달에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고함」(2월, 같은 책, 7-2)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 내지 그 행위는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상징적인 것이었다.

사실 그 이후부터 장혁주는 체제 순응적인 글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그런 반면에 1940년에는 당시의 수작을 모아 『조선문학선집』, (전 3권, 아카쓰카서방)이라는 번역선집으로 간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동화집의 번역행위에서는 전후에 이 시기 거의 일본인이름으로 한국인 특색이 없는 작품을 쓰기도 했던 장의 단순치않은 내면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 6. 마무리에 대신하여

이상으로 부족나마 전후 재일한국인문학의 흐름을 보고 왔다. 그런데 재일한국인문학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역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새 시대를 맞서 많은 재일한국인문학자들이 활발하게 문학활동을 시작하며 문학잡지 등도 여러모로 간행했으나 전후의 혼란기에 있어 살아 나가는 데에 바빠 그 사이에 잡지들도 분실된 것이다. 거기에다가 전후 재일한국인문학의 당사자들인 제1세대가 서서히 세상을 떠나고 있는 지금 자료의 조사, 수집이 매우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새로운 연구자, 전문가가 나타나 있어 그러한 기초작업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하기 바라는 것이다.

---

27) 같은 책, pp. 316-317.

《日本文要約》

## 解放の後 在日韓国人の文學の形成と展開

布袋敏博

戦後初期の在日朝鮮人文學を考える時、「解放直後」という捉え方では充分でなく、少し時間的に幅廣くとってみる必要がある。そのように考えると、それらは大きく、(1) 日本の敗戦から朝鮮戦争まで、(2) 朝鮮戦争から1955年の民戦解散まで、(3) 1955年の在日朝鮮人總連合會（總連）結成以後、の3つの時期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既存の研究は、ほとんど單行本を中心にしたもので、取り扱われる雑誌はせいぜい『民主朝鮮』程度であった。ところが近年、当時の新聞・雑誌類が多く復刻され、より細かく当時の文學狀況を知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そこで、本稿では、上記の時代区分に従って、雑誌を中心に戦後在日朝鮮人文學の流れを追ってみた。

戦後の在日朝鮮人文學は、まず謄寫版の同人誌から始まるが、その初期の頃のものは、「全体的に水準が低く、思想的にも雑多で意識も不透明なままのものが混在している状態」であった。そうしたところへ、『解放新聞』『朝鮮新報』といった民族新聞が発刊され、新たな局面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これら新聞紙上にも創作・評論などが掲載されるが、中でも『解放新聞』紙上で繰り広げられた、魚塘と金達壽による日本語をめぐる論争は、重要な問題を提起している。

(1)のこの時期には、『高麗文藝』『朝鮮詩』『朝聯文化』『朝鮮文藝』『ウリ文學』など多くの雑誌が発刊されたが、その中で、金達壽らによる『民主朝鮮』は、1946年4月から1950年7月までの長期間にわたって總33号を刊行したもので、その意義は非常に大きい。また1946年に刊行された『解放詩選集』は、在日朝鮮人作品集ではなく、当時の南朝鮮の詩人たちのアンソロジーであるが、その当時の在日朝鮮人文學者たちの文學傾向を示すものとして興味深く、またいわゆる朝鮮文學史的にも意味のあるものである。

(2)の時期には、許南麒の個人誌『麥』、金石範らの『朝鮮評論』、金時鐘らの『ヂングレ』などが刊行された。

(3)の1955年の總連の結成は、在日朝鮮人運動史上、大きな轉換点となるもので



あるが、文學史的にも大きな影響をもたらした。これ以降は、文學者たちの組織からの離反と、商業誌への登場が大きな問題点となってくる。そうした中で、この時期には『鷄林』『文學芸術』『朝鮮文化』『朝陽』といった雑誌が発行されている。このうち『文學芸術』には、後に組織を離れる在日朝鮮人文學者が多く関わっているが、中でも金石範の、後の「火山島」の原型ともいえる、朝鮮語による「火山島」が掲載されているのが注目される。

一方、戦前、金史良と並んで日本で活躍していた張赫宙は、こうしたいわゆる在日朝鮮人文學者たちの動きとは別に、独自の行動を見せていた。彼は日本にとどまり、日本に歸化し野口赫宙として文筆活動を續ける。張は、日本の文壇内にあって、もはやほとんど朝鮮人としての役割を終えていたかに見えるが、そうした彼も、朝鮮戦争が起ると、戦地に赴いて、『嗚呼朝鮮』を書き、「故國の悲劇を慟哭するしかない」心情を吐露した。そして興味深いことに、1956年に東京創元社から刊行された『世界少年少女文學全集』の朝鮮編では、金南天の「ムジャリ」、安懷南の「謙虛」、李泰俊の「孫巨富」と「月夜」を、兒童用に書き直して収録した。作者はいずれも解放後、越北した作家たちで、当時、共和國でその行跡がたどれなくなり、韓國ではタブーとされていた文學者であった。1956年という時期に、こうした文學者たちの作品をあえて取り上げているところに、ほとんど日本人化したと見られていた張赫宙の複雑な内面風景を伺うことができるようである。